작은 변화가 큰 복이 됩니다

대한불교법화종 총무원장
관효 스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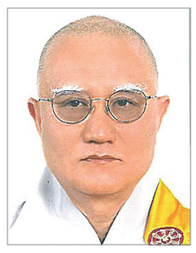
우리는 새해를 맞을 때마다 더 나아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세상을 바꾸는 첫걸음이 바깥의 조건이 아니라 마음의 방향임을 일러주십니다.

법화경은 그 마음의 방향을 가장 분명하게 가리킵니다. 방편품에서 말하는 바와 같이, 부처님 가르침의 궁극은 갈라진 길을 경쟁시키는 데 있지 않고, 마침내 모두를 한 부처의 길(一佛乘)로 이끄는 데 있습니다. 서로를 나누고 가르는 시대일수록, 불자는 그 '한 길'의 정신을 다시 세워야 합니다. 법화경의 '제법실상(諸法實相)'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지 말고, 사람과 사건의 '참모습'을 보라고. 참모습을 본다는 것은 남의 허물을 들춰 이기려는 눈이 아니라, 그 사람의 아픔과 사정을 헤아려 살리는 길을 찾는 눈입니다. 그 눈이 곧 지혜이고, 지혜는 자비로 완성됩니다. 새해의 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모든 분들의 가정에 부처님 가피가 충만하시고, 뜻하신 바 원만 성취하시길 발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붉은말 힘찬 기운, 대동세상 이룹시다

대한불교일붕선교종
총무원장 혜일 스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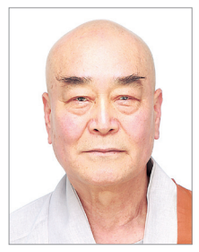


불기 2570(2026)년 병오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첫 태양이 대지를 환히 비추듯,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가 온 국민의 삶 속에 더욱 밝게 빛나길 바라며 새해 인사를 올립니다.

병오년 새해에는 붉은 말의 힘찬 기운이 만물을 일으켜 세우듯 지난 한 해의 모든 고통과 아픔을 이기고 나라와 국민이 화합과 상생의 새로운 희망의 길로 함께 힘차게 나아가길 기원합니다. 부처님의 '동체대비, 세계일화'의 가르침이 온 누리에 널리 퍼져 국민 모두 각자의 마음 속에 대립과 갈등과 적대감을 없애고 지혜와 자비와 상생의 등불을 더욱 환하게 밝혀서 우리 사회 곳곳의 어두운 데까지 차별 없이 골고루 비추어 화합과 평화와 번영의 대동세상을 향해 붉은 말처럼 큰 걸음으로 용맹하게 달려 나갈 수 있기를 두 손 모아 간절히 바랍니다. 부처님의 가피력으로 뜻하시는 모든 일이 원만히 성취되길 축원드립니다.

중도정견으로 새해를 밝힙시다

대한불교삼론종
총무원장 남륜 스님



삼천의 해와 달이 새롭게 밝아오고,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일체중생의 마음에 두루 비추는 새해입니다. 연기와 무자성의 진리를 따라 모든 존재가 서로 기대어 살아가는 이 세계에서, 금년 한 해가 지혜로운 인연과 원만한 공덕으로 가득하기를 삼가 축원드립니다.

존경하는 불자 여러분, 그리고 삼론의 법맥을 함께 이어가는 종도 여러분, 지난해 대한불교삼론종은 숱한 난관 속에서도 공(空)·가(假)·중(中)의 삼제(三諦)가 가르치는 '머무르지 않되 끊어지지 않는 길'을 따라 종단의 근본을 다시 세우는 중요한 정비를 이룬 한 해였습니다.

삼론의 가르침은 '모든 법은 스스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무자성의 통찰에서 출발하며, 이 통찰은 곧 중도의 길이야말로 가장 현실적이고, 가장 자비로운 진리임을 일깨워 줍니다. 중도의 길은 화합의 문을 엽니다. 새해를 맞아 마음이 중도에 머물고, 행이 자비로 나아가 사회를 밝히는 등불이 되길 바랍니다.

갈등 분열 치유에 앞장서자

대한불교원융종
총무원장 진호 스님



해마다 우리는 새해를 맞이하며 새로운 다짐을 하지만, 불법의 길은 언제나 처음과 끝이 다르지 않습니다. 수행은 하루아침에 완성되지 않으며, 공동체 또한 하루의 노력으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다만 매 순간 바른 마음으로 나아갈 때, 비로소 길은 열리고 화합은 이루어집니다.

원융은 차별을 넘어 조화를 이루는 가르침입니다. 나와 남을 가르지 않고, 종단과 사회를 나누지 않으며, 수행과 실천을 둘로 보지 않는 것이 원융의 정신입니다. 오늘의 시대는 그 어느 때보다 갈등과 분열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일수록 불교는 스스로를 돌아보며, 세상과 함께 호흡하는 지혜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새해에도 원융의 정신이 현장 속에서 구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형식보다 본질을, 말보다 실천을 중시하며, 수행 공동체로서의 토대를 더욱 단단히 다져 나가겠습니다.

서로 품는 화엄행 실천합시다

대한불교화엄종
총무원장 화응 스님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화엄종도 여러분. 부처님 자비광명이 충만한 새해가 밝았습니다.

병오년 새해를 맞아 사부대중과 불자 여러분 모두에게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충만하시기를 발원합니다.

오늘의 시대는 분열과 갈등, 전쟁과 불평등으로 깊은 상처를 안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붙들어야 할 가르침은 일즉다 다즉일의 화엄사상입니다. 나와 남, 개인과 사회는 결코 따로 존재하지 않으며, 타인의 고통은 곧 나의 고통입니다. 함께 돌보는 세상에서 우리는 행복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새해에는 경쟁과 배타를 내려놓고 서로를 품는 화엄행을 실천합시다. 작은 자비의 실천이 모여 세상을 밝히는 큰 빛이 될 것입니다.

모든 가정에 법계의 광명이 가득하기를 발원합니다. 함께 화엄행을 실천해 갑시다. 감사합니다.

깨어나는 새해를 고요히 맞이하자

대한불교조동종
총무원장 덕우 스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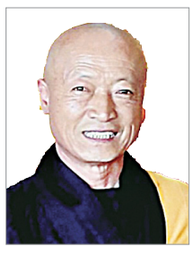
새해의 문턱에서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가 이 땅의 모든 생명 위에 고르게 스며들기를 삼가 발원합니다. 존경하는 종도 여러분, 그리고 불자 여러분. 오늘의 세상은 속도와 결과를 앞세웁니다. 그러나 수행의 길은 멈추어 보고 내려놓는 데서 시작됩니다. 말없이 자신을 비출 때 마음은 스스로 자리를 잡게 됩니다.

조동종은 새해에도 수행 전통을 굳건히 하고, 종도 교육과 수행 공동체의 내실을 다지며, 현대인의 삶 속에서 고요한 힘이 살아 움직이도록 차분한 포교와 실천을 이어가겠습니다.

새해를 맞아 종도 여러분의 좌복 위에 평안이 깃들고, 불자 여러분의 일상 속에 깨어 있는 마음이 늘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고요하되 흐트러지지 않고 정진하되 조급하지 않은 한 해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말과 행동으로 이웃 아픔 치유를

대한불교여래종 총무원장
명안 스님



새해의 첫걸음마다 불보살의 가피가 함께하시어 마음은 평안하고 행보는 바르기를 기원합니다. 여래의 가르침은 분별을 내려놓고 서로를 살피는 데서 시작됩니다. 탐욕을 비우고 겸손을 세우며, 말과 행동을 삼가 이웃의 아픔을 덜어주는 삶이 곧 수행의 길임을 다시 새겨야 할 때입니다. 나를 낮추고 남을 먼저 헤아리는 그 마음이 세상을 맑히는 첫 인연이 됩니다. 작은 보시와 한 걸음의 실천이 어둠을 밝히는 등불이 됩니다. 크고 거창한 공덕이 아니더라도, 일상 속에서 이어지는 자비의 실천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이 됩니다. 새해에는 가정과 사회에 복덕이 더욱 충만하시고, 하시는 모든 일이 원만히 성취되기를 서원합니다.

치유와 평화 힘 전하겠습니다

대한불교진언종
총무원장 혜천 스님



병오년 새아침에 부처님의 진언 공덕이 온 세상에 가득하기를 발원합니다. 새해의 첫 숨결마다 진언의 울림이 퍼져, 중생의 마음을 맑히고 삶의 방향을 바로 세워주기를 기원합니다. 진언은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곧 수행이며, 마음과 몸을 동시에 밝히는 실천의 길입니다. 한 글자 한 음절의 염송 속에 번뇌는 가라앉고, 지혜와 자비는 더욱 또렷이 드러납니다. 꾸준한 진언 수행은 스스로를 다스릴 뿐 아니라 세상을 이롭게 하는 힘으로 이어집니다. 대한불교진언종은 새해에도 계율과 수행을 근본으로 삼아 일상의 번뇌를 다스리고, 진언이 지닌 치유와 평화의 에너지를 사회 곳곳에 전하겠습니다.

혼란과 갈등의 시대일수록 수행자의 정진이 더욱 절실함을 깊이 새기겠습니다.

자비로 여는 새 아침을 열며

대한불교대승종
총무원장 일봉 스님



새 아침을 맞아 사부대중과 모든 중생에게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가 충만하기를 발원합니다. 대승의 가르침은 나만의 해탈에 머무르지 않고, 함께 깨닫고 함께 건너는 길입니다. 나의 평안은 이웃의 안녕과 분리될 수 없으며, 한 생명의 고통을 외면하는 수행은 온전할 수 없습니다. 자비는 말이 아니라 실천이며, 지혜는 앎이 아니라 삶의 태도입니다. 새해에는 분노를 내려놓고 이해를 키우며, 경쟁보다 연대를, 이익보다 공덕을 먼저 생각합시다. 작은 친절 하나, 한 번의 배려가 곧 보살행이며, 그 한 걸음이 세상을 밝히는 등불이 됩니다. 대한불교대승종은 대승보살도의 본뜻을 되새기며, 중생과 함께 울고 웃는 불교, 삶의 현장에서 숨 쉬는 불교를 실천해 나갈 것입니다. 모든 존재가 본래 부처임을 믿고, 자비의 발걸음으로 새로운 한 해를 힘차게 열어갑시다. 부처님의 가피가 가정마다 두루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대한불교진각종

진기 80 년

감 동 교 화
自受法樂 自心善行 自己變化 自我實現

총 인 덕 일
통리원장 능 원
종의회의장 증 혜
현정원장 대 원
교육원장 정 법
총금강회장 일지정

서울특별시 성북구 화랑로 13길 17 | 전화 02) 913 - 0751 | 팩스 02) 913 - 0755